

# 義利 · 王霸 論辨

— 道와 歷史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 문 교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 I. 들어가는 말

주희와 진량의 義利 · 王霸 논변은 王道와 霸道라는 개념을 둘러싼 정치철학적 입장차이를 중심으로 전개된 논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두 사람 사이의 논쟁에서 王道와 霸道の 문제는 義와 利라는 윤리적 판단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주희와 진량의 이른바 義利 · 王霸 논변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들과 인물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義利 · 王霸 논변에서 주희(朱熹)는 전통적인 유가의 입장을 이어받아 霸者(霸道)란 仁義를 가장하지만 위압정치를 일삼음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공리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자들이며, 王者(王道)는 진정한 仁義의 德을 대표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王과 霸에 대한 주희의 이해의 기초에는 동기 중시의 윤리적 관점이 놓여 있다. 주희는 이러한 동기 중시의 윤리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전통적으로 霸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던 관중과 漢 · 唐의 군주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진량(陳亮)에게 ‘義利雙行, 王霸並用’의 입장을 버리라고 촉구한다. 이에 비해, 진량은 義/利와 王/霸라는 개념 짝에 대한 주희의 엄격한 이분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진량은 주희가 진량 자신의 입장에 대해 ‘義利雙行, 王霸並用’ 혹은 王道와 霸道の 혼합(雜霸)이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王霸並用이라는 말 대신에 王道라고 부를 것을 주장한다.

두 사람의 논쟁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본다면, 주희와 진량이 서

로 다른 인간본성에 대한 이해(人性論)와 세계이해(本體論)를 통해 각기 다른 윤리적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성과 공리적 결과(義와 利)라는 윤리적 개념과 王道와 霸道라는 정치원리를 둘러싼 이 논쟁에서 대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진량은 義와 功利, 그리고 王道와 霸道を 종합하는 새로운 윤리학적 모델을 자신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진량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단지 신체적 氣와 관련되어 있는 자연적 욕망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욕망으로서의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로 볼 때는 위태롭지만 언제나라도 약간의 제한, 즉 사회적 규범과 제도를 통해서 善을 지향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진량은 인간의 욕망에 제한을 주는 사회적 규범과 제도란 바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욕망에 기초한 것으로 봄으로써 인간의 욕망이 지니는 긍정적인 성격을 부각시킨다. 결국 진량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연주의적 관점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유가적 도덕과 일치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진량은 인간의 욕망 충족과 사적인 이익추구가 만일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공동체 전체로 확대된다면 그것은 공적인 善(仁)을 실현하는 것이며, 바로 그러한 추구가 유가적 도덕의 최고의 덕목인 仁을 이루는 방법(仁之方)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진량은 사적인 이익추구의 확장이 곧 공적인 선(仁)의 실현이라는 관점으로부터 관중과 漢·唐의 영웅적 군주들의 업적을 霸道の 행위가 아니라 王의 방법(王道)을 실천했던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진량의 기본 관점은 도덕과 공리의 종합,公私의 종합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진량은 이러한 기본 관점을 기초로 하여 동기와 결과, 王道와 霸道사이의 전통적인 구분을 해소함으로써 과거의 영웅적 군주들의 업적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金에게 빼앗긴 국토의 수복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위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비해, 주희는 天理의 도덕형이상학을 바탕으로 도덕의 순수성을 강조함으로써, 도덕성(義)과 공리(利), 그리고 王道와 霸道を 철저히 구분한다. 무엇보다 주희는 동기의 순수성을 중시하여 진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漢·唐의 군주들과 관중의 행위를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판하고, 진량에게 '義利雙行, 王霸竝用'의 입장을 버리라고 촉구

한다.

주희와 진량사이에 벌어진 논변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인 역사적 시기와 인물들에 대해 내리는 윤리적 판단들은 무엇보다 먼저 道개념을 둘러싼 형이상학적 입장(本體에 대한 이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희와 진량은 義利 · 王霸 論辨에서 道개념이 함축하는 의미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론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구체적인 역사적 시기들과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타협할 수 없는 대립에 이르게 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주희와 진량의 義利 · 王霸 論辨에서 이론적 전제로서 나타나는 道에 관련된 양자의 대조적인 관점을 기술하고, 그러한 道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역사(三代와 漢 · 唐)에 대한 두 사람의 상반된 평가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양자의 마음이론과 역사에 대한 관점(역사현실 자체에 대한 중시와 道統說에 기초한 역사이해)을 기초로 한 인간의 마음과 제도에 관한 두 사람의 대립적인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 II. 본론 — 道와 歷史

### 1. 陳亮의 道개념과 三代와 漢 · 唐에 대한 평가

#### (1) 道の 내재성과 운동성

주희와 진량의 논변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들과 인물들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관련하여 전개되는데, 특히 三代와 漢 · 唐대에 대한 평가가 그 주된 대상이 된다. 그런데 三代와 漢 · 唐시대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는 道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형이상학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모두 三代와 漢 · 唐시대를 道와 역사에 관한 자신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먼저 진량이 이해한 道の 개념을 살펴보자면, 첫째 진량에게서 道는 결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다. 道는 사물현상 속에 내재한다.

대체로 道란 천하 속에 존재하는 것이니, 어찌 道가 아닌 사물

이 있겠는가(어찌 천하에 道의 바깥의 일들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sup>1)</sup>

道란 형태와 심리-물리적 에너지(氣)가 외적으로 드러남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즉 사물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물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는 무엇이다. … 천하에는 진실로 道바깥의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sup>2)</sup>

진량은 이처럼 道는 사물 현상 속에 내재하며, 사물 현상 중에 무엇하나 道가 아닌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道는 사물현상의 구체적 존재 바깥에 따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상존재에 의존하여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량은 주희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道는 감았던 눈을 뜨기만 하면 볼 수 있는 태양처럼 천지 어디에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道가 아님이 없다고 말한다.<sup>3)</sup> 진량은 심지어 道는 인간의 행위 또는 감정으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즉 진량은 道를 인간의 감정이 적절하게 발현된 것(감정의 中節의 표현)과 동일시한다.<sup>4)</sup>

이러한 진량의 道의 내재성이라는 개념은 그의 강력한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나타내준다.<sup>5)</sup> 진량에 따르자면, 道를 넓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일 뿐이고, 道가 인간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人能弘道, 非道能弘人), 인간은 天·地·人 三才사이에 존재하는

1) “夫道之在天下，何物非道!”, 『陳亮集』卷27, 「與應仲實」.

2) “夫道，非出于形氣之表，而常行于事物之間者也。… 天下固無道外之事也。” 『陳亮集』卷9, 「勉強行道大有功」.

3) “天地之間，何物非道! 赫日當空，處處光明，閉眼之人，開眼即是。” 『陳亮集』卷28, 「又乙巳秋書」.

4) “道가 그 밖의 무엇이란 말인가(어디에 있던 말인가)? 그것(道)은 다만 喜, 怒, 哀, 樂, 愛, 惡라는 감정들이 그것들의 바름을 얻은 것일 뿐이다(그것들의 적절한 표현에 도달한 것일 뿐이다)… “夫道豈有他物哉，夫喜怒哀，哀，樂，愛，惡得其正而已；行道豈有他事哉，審喜怒哀樂愛惡之端而已。” 『陳亮集』, 「勉強行道大有功」.

5) Hoyt Cleveland Tillman, *Utilitarian Confucianism, 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HARVARD UNIVERSITY PRESS), 158쪽.

자연적인 상응(공명)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도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진량은 영웅적인 군주들의 활동과 그들의 업적은 인간의 행위가 道의 존망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지를 증명해주는 예라는 것이다.

“漢高祖, 唐太宗, 그리고 宋太祖(皇家太祖)는 천지가 늘 쉬지 않고 운행하기 위하여 의지했고, 인간의 제도들(人紀)이 존속하기 위하여 의지했던 군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道의 존망이란 인간이 간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말인 것입니다. … 더구나, 만일 道가 존재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면(道가 인간에 의존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佛家(釋氏)에서 말하듯이, 천겁만겁이라는 것(영겁의 시간동안 굴러가는 고통의 윤회의 수레)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sup>6)</sup>

이처럼 진량은 漢 高祖와 唐 太宗, 그리고 宋 太祖는 천지가 그치지 않고 운행하기 위해서 의지했던 군주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진량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앞서 말했듯이 자연과 인간의 상응 관계(天人相應關係, 또는 天·地·人 三才의 상호감응의 관계)에 대한 믿음과 인간의 능동성(능동적 실천성)에 대한 그의 강조이다.

둘째로, 진량은 道의 내재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道는 부단히 운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道의 존재형식은 부단히 운동하여 쉬이 없다는 것이다.<sup>7)</sup> 그런데 진량에 따르면, 이러한 道의 운동성은 자연의 운동·변화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역 즉 인간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량에게서 道의 내재성과 부단한 운동성은 역사가 필연적으로 변화 발전한다는 것을 보장해준다. 결국 진량은 道의 존재형식들, 즉 道는 오직 현상 사물 안에 내재함으로써만 드러난다는 것(道의 내재성)과 道가 부단히 운동함으로써

6) “高祖太宗及皇家太祖, 蓋天地賴以常運而不息, 人紀賴以接續而不墜: 而謂道之存亡非人之所能預, 則過矣 … 道非賴人以存, 則釋氏所謂千劫萬劫者, 是真有之矣.” 『陳亮集(增訂本)』, 346쪽.

7) “夫陰陽之氣, 闔闔往來, 間不容息. … 此天地盈虛消息之理, 陽極必陰, 陰極必陽, 迭相爲主而不可窮也.” 『陳亮集』卷27, 「與徐彥才大諫」.

존재한다는 것(道の 운동성)은 道가 자연 속에서 끊임없는 운동 변화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회와 역사 속에서도 변화와 발전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진량의 위와 같은 道 개념은 道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道の 보편성과, 또한 그렇게 道가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근거로서의 道 자체의 변화의 필연성을 함의한다. 즉 道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끊임이 변화함으로써) 보편적으로 실재한다(또한 한 순간이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즉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러한 진량의 道개념은 다른 역사적 시기에 나타나는 道の 현실적 내용은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진량에게 있어서 道の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인간은 반드시 道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역사의 변천과 발전의 과정을 살펴봐야만 한다. 다시 말해 역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야말로 道를 인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진량이 역사 연구를 자신의 학문의 일차적 과업으로 삼은 것은 바로 이러한 道 개념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진량에게 있어서 道の 인식은 각기 다른 역사적 시기들 속에서 드러나는 道の 현실적 내용과 그 변화(변천)의 실재를 면밀히 살피는 것에 다름 아니다.

## (2) 三代와 漢·唐에 대한 평가

앞서 보았듯이, 진량은 道の 존재방식을 현상세계에 내재하며 끊임없이 운동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道가 인간의 역사 속에 내재하여 진화한다는 주장을 이끌어냈다. 진량은 위와 같은 道の 존재 방식으로 인해서 道는 각기 다른 역사적 시기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진량의 주장은 역사 상대주의를 함축한다. 즉 각기 다른 역사적 시기에는 저마다 다른 道の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sup>8)</sup> 결국 진량은 道 자체가 불변하며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함

8) 이런 입장을 보다 더 밀고 나가면 어느 특정한 시기의 道の 현실적 형태가 더 우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며, 이는 역사상대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진량은 三代의 상대적 우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으로써, 역사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道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나타난 道의 특권화, 즉 道가 실현되었던 특정한 시대를 절대화시키기를 거부한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부터 진량은 三代와 漢·唐 시대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진량은 三代의 시기동안 道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잘 실현되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sup>9)</sup> 그러나 진량이 문제삼는 것은 유독 三代의 시기에만 道가 실현되었다는 三代에 대한 특권화된 평가였다. 이러한 평가는 진량이 보기에 한갓 三代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道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이끄는 것이었다. 그래서 진량은 주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亮)가 원래 朱元晦와 더불어 논의했던 것은 三代와 漢, 唐 사이의 비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天地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道를 밝게 빛나는 별이나 희고 밝은 달과 같은 것으로서 밝히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은 사람이라면 다만 그 감았던 눈을 뜨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이른바 눈을 감은 채 우연히 맞아떨어졌다(暗合)는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sup>10)</sup>

진량은 주희가 三代는 道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던 시기라고 인정하는 반면, 漢·唐代는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道에 맞아 떨어졌을 뿐인(暗合) 시기라고 규정한 것<sup>11)</sup>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道가 천지사이에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은 마치 하늘에 밝게 떠 있는 별이나 달을 사람들이 눈을 뜨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명백하다고 주희에게 말한다. 진량이 보기에는, 三代와 마찬가지로 漢·唐

9) 진량은 三代가 본령과 공부가 모두 이루어진 시대인데 비해, 漢·唐은 본령만 있고 공부가 부족했다고 말한다. “亮大意以爲本領闕闊, 工夫之到, 便做得三代; 有本領無工夫, 只做得漢唐.” 『陳亮集』, 「又乙巳秋書」.

10) “亮與朱元晦所論, 本非爲三代, 漢, 唐設, 且欲明此道在天地間如明星皎月, 閉眼之人開眼即是, 安得有所謂暗合者乎?” 『陳亮集』 21:9下, 330쪽.

11) “千五百年之間, 正坐如此, 所以只是架漏牽補過了時日, 其間雖惑不無所康, 而堯, 舜, 三王, 周公, 孔子所傳之道, 未嘗一日得行於天地之間也. 若論道之常存, 卻又初非人所預, 只是此箇自是亘古亘今常在不滅之物, 雖千五百年被人作壞, 漢唐所謂賢君, 何嘗有一分氣力扶助得他耶”, 『朱熹集』 卷36, 答陳同甫.

代도 역시 道가 실현되었던 시기였다. 왜냐하면 道는 역사 속에 내재하는 것이며, 잠시도 쉬거나 멈추지 않는 것(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三代와 漢·唐代 사이에 道가 실현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진량은 인정한다. 그러나 三代에는 道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던 반면에 漢代와 唐代에는 道가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道의 不在)는 주희의 주장에 진량은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량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道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三代의 특권적 위치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三代의 제도는 비록 서로 모방하여 계승하였지만 그 가운데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전국시대 제후들(覇者들)의 분쟁 속에서 제후들은 제각기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三代의 제도를 모방한 흔적이 여전히 그 가운데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三代는 서로 모방하여 계승하였지만 여전히 완전히 같지는 않았고, 五覇는 서로 달랐으나(異) 三代의 제도를 계승하는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sup>12)</sup>

진량은 역사 속에 실재했던 三代(夏, 殷, 周)의 시기동안에 제도들이 차례로 계승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대에는 서로 간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즉 三代의 시기동안에는 앞 시대의 제도를 이어서 모방하고 계승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었으며, 각 시대 나름의 고유한 제도가 존재했었다는 것이다. 진량은 다른 한편으로, 五覇가 서로 일어나 나라를 세우고 제도를 정하여 정치를 했을 때, 그들도 역시 三代의 시대와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三代의 제도를 모방하여 계승한 측면이 조금씩은 있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진량의 주장은 만일 제도를 계승하는 측면이 역사 내재적인 道의 운동의 연속성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三代시기 동안이나 그 이후의 覇者들이 정치를 했던 시기나 똑같이 道의 운동의 연속성을 증명해주는 것이며, 바로 것처럼 道

12) “夏, 殷, 周之制度定爲三家, 雖相因而不盡同也. 五覇之紛紛, 豈無所因而然哉!” 『陳亮集』 卷28, 「又乙巳春書(與朱元晦) 之一」.



의 역사 속에서의 연속성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三代나 그 이후의 시대나, 비록 정도상의 차이는 있어도, 동등한 지위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三代가 서로 모방하여 제도를 계승하는 측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각기 다른 제도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은 진량이 보기에는 三代에 道가 완벽하게 실현되었던 유일한 역사적 시기라는 특권적 지위를 부여했던 주희의 입장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

## 2. 주희의 道개념과 三代와 漢·唐에 대한 평가

### (1) 道の 초월성 강조

진량이 道の 내재성과 운동성이라는 존재방식에 근거하여 자연과 사회·역사의 현실 속에는 언제나 그 시대 상황에 따르는 저마다 다른 형태의 道가 존재한다고 본 반면에, 주희는 현실 혹은 역사의 변천과는 무관하게 道 그 자체가 존재한다고 본다. 또한 진량이 위와 같은 道에 대한 관념에 天·地·人 三才의 상응관계에서의 인간의 능동적(주도적) 역할에 대한 관념(믿음)을 더하여, 道를 인간의 행동 여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본 것에 비해서, 주희는 道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인간 개인이나 현실 역사가 더럽히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道자체는 인간이 간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독립성과 절대성을 지닌다고 본다. 달리 말하자면, 진량이 道와 현실역사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했다면, 주희는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을 강조한다. 물론 주희의 철학 체계 내에서는, 道와 현실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존재한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道와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道가 지니는 내재성과 초월성이라는 두 측면과 표리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희에 따르면, 道(또는 太極)는 모든 현상세계의 변화 발전의 존재론적 근거(所以然)이자, 천지 만물의 운행의 객관적 법칙이다. 주희는 이러한 道 혹은 太極과 현실세계의 관계를 유명한 '理一分殊'이라는 정이천의 말을 통해 표현한다. 주희에 따르자면, 道 혹은 太極은 모든 이치(理)들의 전체이자 총체적 근원(理一)이면서, 동시에 현실세계 속의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자들 안에 내재한다는 것이다. 주희는 총체적 원리로서의 太極자체와 그러한 太極이 현실세계 안의 각각의 개별적 사물들 속에 내재되어 구현된 것인 이치(分殊理)를 구별한다. 전자를 주희는 理一이라고 하고, 후자를 分殊理라고 한다. 주희의 이러한 理一分殊說에서 우리는 道(太極)의 초월성(현실에 대한 道의 불연속적 측면)과 현실(역사) 내재성(현실에 대한 道의 연속적 측면)이라는 두 측면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주희의 철학(理氣論)체계 속에서, 현실세계 속에 내재된 道는 氣를 통해서 구현됨과 동시에 은폐된다(理는 氣에 의존한다-理附(寓)於氣). 그러므로 道는 氣의 순수성의 여부에 따라서 그 구현의 정도와 수준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상세계, 즉 역사에 내재하여 구현되는 道란 그 실현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희는 주장한다.

## (2) 三代와 漢·唐에 대한 평가

이처럼 주희는 현실(역사)에 대한 道의 초월성 또는 불연속성을 강조하면서, 道는 사람이 간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진량에게 말한다. 그래서 바로 지난 천 오 백년 간 사람들이 현실세계(역사)에 내재하는 道를 파괴했지만 그 현실세계(역사)에 대해 본체이자 규범인 초월적인 道 그 자체는 끝내 사라지지 않았다고 주희는 말한다. 즉 아무리 인간이 거슬러서 행동하더라도 결코 영원 불변하는 道 자체는 그러한 인간의 행동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희는 진량에게 漢·唐의 군주들이라 할지라도 이 영원 불변하는 道를 일으키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고 단언한다.<sup>13)</sup> 그리고 나서 주희는 진량이 道에 대한 상대주의적 인식을 바탕으로 漢·唐을 높이고 三代를 폄하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13) “若論道之常存，卻又初非人所預，只是此箇自是亘古亘今常在不在之物，雖千五百年被人作壞，漢唐所謂賢君，何嘗有一分氣力扶助得他耶。”『朱熹集』卷36，「答陳同甫(第6書)」.

“그대가 편지에서 말하신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대체적인 주제는 漢·唐을 떠받들어 三代와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三代를 폄하하여 漢·唐과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단지 옛날과 지금의 [마땅함의 기준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聖人들과 현명한 정치가들이 행했던 일들(聖賢之事)이 전적으로 하나의 모범(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sup>14)</sup>

주희는 진량이 漢·唐代의 군주들이 三代의 聖人들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오히려 三代의 聖人들과 三代의 시기를 폄하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비난한다. 주희는 진량이 그렇게 함으로써 三代와 漢·唐代를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주희는 계속해서 天·地·人 三才의 관계(인간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강조)와 자연의 지속적인 작용이 인간의 영역에서 道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는 진량의 주장을 다음처럼 요약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말해야만 합니다. 즉 ‘天·地·人이 함께 서 있음으로써 三才를 이루기 때문에, 하늘과 땅(天地)만이 운행하고 인간(人)의 활동이 멈출 수는 없다(天地가 인간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행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이미 하늘과 땅(天地)은 변함없이 존재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漢·唐의 시대가 비록 다만 이처럼 헛되이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漢·唐의 군주들은 인간이 해야 할 사업을 완수한 것이 되며, 또한 하늘과 땅(天地)이 그들에게 의존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sup>15)</sup>

주희가 보기에 진량의 논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天·地·人 三

14) “來教云云, 其說雖多, 然其大概, 不過推尊漢唐, 以爲與三代不異; 貶抑三代, 以爲與漢唐不殊. 而其所以爲說者, 則不過以爲古今異矣, 聖賢之事不可盡以爲法…”, 『朱熹集』 卷36, 「答陳同甫(第6書)」.

15) “故又須說天地人竝立爲三, 不應天地獨運, 而人爲有息; 今既天地常存, 卽是漢唐之世只消如此, 已能做得人底事業, 而天地有所賴以至今.” 上同.

才는 서로 의존해서 존재하며 작용한다, 天·地·人 중에서 어떤 존재도 자기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없다면 존재할 수도 작용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자연(天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인간의 사회 정치적 영역)사이에는 일종의 상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三才가운데에서 가장 능동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天地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존재해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天地의 존재의 지속은 인간의 영역에서 道가 실재함을 증명해준다. 주희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진량은 天地가 [비록 아무리 그들의 업적이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치더라도] 漢·唐의 영웅적 군주들에게 의존하여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道에 일치하는 것이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물론 주희도 天地(자연의 영역)와 인간(사회·정치 영역)사이에 있는 상용관계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는 天·地·人을 三才로 만들어 주는 道가 둘일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희는 天地는 아무런 사사로운 의도를 갖지 않는데(天地無心) 비해서 인간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선택하여 道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天, 之, 人이 三才가 되는 이유는 진실로 일찍이 두 개의 다른 道가 있어서가 아닙니다(天地人 三才를 三才로 만들어주는 근거는 하나의 道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天地는 마음이 없지만(無心),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天地의 운행은 무궁하나 인간은 때때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대체로 인간의 도덕적인 마음(義理之心, 道心)이 한 순간이라도 존재하거나 작용하기를 그치면, 인간의 영역 안의 道(人道)도 또한 그치게 됩니다. 인간의 영역에서의 道(人道)가 그치게 되었다고 해서, 일찍이 天地의 작용이 멈춘 일은 없었지만, 나(즉 인간)와 관련된 道의 바로 그 측면은 [바로 그때 거기에서] 작용하기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둥그런 하늘이 위에서 운행되고 딱딱한 땅이 아래에 있는 것만을 보고는, 곧 바로 인간의 영역에서의 道(人道)는 서있지 않은 때가 없으며 天地가 인간을 의지하여 존재한다는 주장의 증거로 삼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道의 존망

이 인간에게 달려있으니 인간을 버려 두고는 道를 행할 수 없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道 자체는 결코 사라진 적이 없지만, [인간의 영역에서의 道(人道)의 존망이란] 다만 인간이 體認한 것이 道에 이르렀는지 그렇지 못한 것 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 몸이 있으면 이 道가 저절로 존재하게 되며, 또한 반드시 이 몸이 없어진 후에야 道 역시 사라지게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sup>16)</sup>

주희는 여기서 天地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天地는 인간과 같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작용이 무궁할 수 있는 반면, 인간에게는 욕망(欲)이 존재하므로 언제라도 사사로운 욕망 때문에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道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天地는 마음이 없다(天地無心)’는 주희의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언뜻 보기에 ‘天地는 마음이 없다’는 주희의 이 언급은 매우 道家적이다. 그렇다면 주희는 天地를 인간의 의도나 규범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운행되는 스스로 그러한(自然) 우주자체로 보았던 것일까? 아니면 물질적인 자연으로만 간주하여 자연에는 인간과 같은 마음(의식과 감정작용, 즉 정신작용)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天地란 天理의 지극히 공정함(天地之公 = 天理之公)을 의미하며, 私에 대립되는 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희가 말하는 ‘天地에는 마음이 없다’에서 마음이란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 즉 인욕의 마음(人心)이다. 다른 한편 주희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에는 人欲이 아닌 마음, 즉 天理의 마음(道心)도 존재한다. 바로 이러한 天理의 마음은 天地의 공평무사한 성격과 닮아있다. 주희는 道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양자를 구분하듯이, 인간의 마음도 天地의 공평무사함

16) “夫三才之所以爲三才者，固未嘗有二道也。然天地無心而人有欲，是以天地之運行無窮，而在人者有時而不相似。蓋義理之心，頃刻不存則人道息，人道息則天地之用雖未嘗已，而其在人者即固即此而不行矣。不可但見其穹然者常運乎上，頽然者常在乎下，便以爲人道無時不立，而天地賴之以存之驗也。夫謂道之存亡在人，而不可舍人以爲道者，正以道未嘗亡，而人之所體之者有至有不至耳；非謂苟有是身則道自存，必無是身然後道乃亡也。”『朱熹集』卷36, 「答陳同甫(第8書)」.

과 일치하는 측면과 그렇지 않은 측면을 구분하고 있다. 결국 진량에게 말했던 ‘天地無心’에서의 마음이란 天地의 공평무사함과 대립되는 인간 마음의 한 측면인 人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주희는 인간이 간여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하는 초월적인 道자체와 인간의 영역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잠재태로 존재하지만 언제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닌 道를 구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주희는 天地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의 영역에서의 道(人道)가 언제나 실현되었으며, 또한 인간에 의존하여 天地가 존재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인간의 영역에서의 道만이 인간이 간여할 수 있는 道이며, 道 자체는 인간의 윤리적 타락이 침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인간의 간여를 넘어서는 초월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 3. 마음과 제도의 항존성 — ‘心無常泯, 法無常廢’의 해석문제

주희와 진량의 논쟁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 쟁점은 ‘心無常泯, 法無常廢’라는 말에 대한 두 사람의 상반된 해석이다. 그래서 주희는 자신의 입장과 진량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지점이 바로 ‘心無常泯, 法無常廢’라는 말에 대한 이해의 차이라고 지적한다.

“보내신 편지에서 ‘마음은 항상 소멸하지 않으며, 법은 항상 폐해지지 않는다’라고 한 단락이 바로 이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단락이야말로 제가 동의하는 점이 가장 많지만 동시에 달리 생각하는 것도 가장 심합니다. 대체로 이 사람이 있으면 이 마음 있게 되고,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법이 있게 되니, 진실로 항상 사라지거나 폐해지는 이치는 없습니다. 다만 항상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때때로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항상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때때로 폐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天理와 人欲은 함께 성립하여, 때로는 끊어지고 또 다른 때는 이어짐이 진실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본연의 오묘함을 논한다면 天理만이 존재할 뿐 人欲은 없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聖人は 반드시 人欲을 모두 제거하여 완전하게 天理를 회복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란 항상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

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사라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法이란 항상 폐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폐해지지 않는다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미약하니 정밀하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심을 잡으라(書經 大禹謨)”라고 한 것은 堯·舜·禹가 은밀하게 전한 종지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형체의 사사로움에 매이게 되므로 정녕 人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天地의 올바른 기를 얻어 태어났으므로, 또한 道心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둘은 함께 움직이면서 변갈아 승부를 가립니다. 그래서 한 몸의 옳고 그름, 얻음과 잃음, 천하의 평화와 혼란, 안전과 위험은 모두 이와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밀하게 선택을 하여 人心이 道心에 뒤섞이지 않도록 하고 일관되게 이것을 지켜 天理가 人欲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릇 행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중도를 얻지 못할 것이 없게 되고, 천하·국가 어디에 처하든지 합당하지 않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 위태로운 人心에 의지하여 때때로 사라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본래 미약한 道心을 기준으로 잠시 동안이나마 항상 사라지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겠습니까?”<sup>17)</sup>

진량이 인간의 마음(人心)과 제도(法)가 영원히 사라지거나 폐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주희는 인간의 마음과 法이 항상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때때로 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진량은 道의 내재성과 운동성이라

17) “來書心無常泯，法無常廢一段，乃一書之關鍵。鄙意所同，未有多於此段者也；而其所異，亦未有甚於此段者也。蓋有是人則有是心，有是心則有是法，固無常泯常廢之理。但謂之無常泯，即是有時而泯矣；謂之無常廢，即是有時而廢矣。蓋天理人欲之並立，其或斷或續，固宜與此。至若論其本然之妙，則有天理而無人欲。是以聖人之教人，必欲其盡去人欲而復全天理也。若心則欲其常不泯而不恃其不常泯也，法則欲其常不廢而不恃其不常廢也。所謂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者，堯舜禹相傳之密旨也。夫人自有生而恪於形體之私，則固不能無人心矣；然而必有得于天地之正，則又不能無道心矣。日用之間，二者並行，迭爲勝負，而一身之是非得失，天下之治亂安危，莫不繫焉。是以欲其擇之精而不使人心得以雜乎道心，欲其守之一而不使天理得以流於人欲，則凡其所行，無一事之不得其中，而於天下國家無所處而不當。夫豈任人心之自危，而以有時而泯者爲當然；任道心之自微，而幸其須臾之不常泯也哉！”『朱熹集』卷36，「答陳同甫(第8書)」。

는 존재방식이 역사 속에서의 道의 실현의 지속성을 보장해 준다고 간주했다. 진량에 따르면, 道는 모든 시기의 역사 속에서, 즉 三代이든, 漢·唐시대이든 차이가 없이 작용한다. 그래서 그는 三代이후의 천 오 백년의 시간 동안 道는 역사의 장에서 전혀 실현된 적이 없었다(道의 不在)는 주희의 선언에 항의하고, 설령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三代이후의 시기에 도는 지속적으로 실현되어왔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증거로써 진량은 五霸가 일어나 저마다 나라를 세워 정치를 할 때조차도 三代의 제도가 일부나마 계승되었으며, 또한 三代마저도 제도를 서로 간에 모방하고 계승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 계승한 제도가 앞선 시대의 제도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진량에 따르면, 바로 이런 점에서 제도란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시대에 적합한 저마다의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변천에 따라 각기 다른 제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곧 제도(法)가 영원히 사라지거나 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진량은 본 것이다. 그러므로 진량은 인간의 제도란 항상 존재해왔으며 결코 사라지거나 폐해지지 않는 것(法無常廢)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三代의 聖인들과 현명한 정치가들의 도덕적인(공적인) 마음이 그 이후의 시대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각 시대마다 위대하고 고귀한 마음을 지닌 자들이 나와서 道를 인간 세상에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에 의지해서 자연세계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로 漢·唐의 영웅적인 군주들의 마음과 행동이야말로 진량이 보기에는 인간의 마음이 결코 사라지거나 폐해지지 않았다(心無常泯)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이러한 주장은 진량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진량에게 인간의 마음은 오직 '현상적 마음(人心)' 하나일 뿐이다. 그는 주희처럼 人心과 道心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道心을 따를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진량은 주희가 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의 구분이란 본래 하나일 뿐인 마음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이러한 진량의 마음이론은 그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있다. 진량은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욕망의 차원으로 한정하고,



따로 선협적인 인간의 도덕적 본성(즉 未發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량은 이처럼 도덕적 본성을 배제하고 자연적 본성이라는 오직 하나의 본성만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도덕성의 근거를 바로 그 위에 정초하고자 한다. 진량은 도덕적 실천을 위한 근거로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자연적 본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공유된 인간의 욕망이 도덕성의 기초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진량에게는 굳이 주희처럼 인간의 본성을 자연적 본성(氣質之性)과 도덕적 본성(本然之性)으로 나눌 필요가 없었다. 결국 진량이 ‘心無常泯’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人心)이란 주희가 말하는 도덕적 마음(道心)에 대비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욕망의 마음(人心)과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반면, 주희는 자신의 마음 이론과 도통설에 근거하여 인간의 마음(人心)과 제도(法)가 영원히 사라지거나 폐해지지 않는다는 진량의 주장에 반대하고, 그것들이 때때로 사라지고 폐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희는 인간의 마음과 제도가 사라지거나 폐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쉽게 그렇게 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 이유는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미약(隱微)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날 때부터 육신(形體)의 사사로움(私)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진실로 人心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반드시 천지의 바름(天地之正), 즉 바른 기운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한 道心이 없을 수 없다고 주희는 덧붙인다. 그래서 이 양자, 즉 人心과 道心은 평상시에 공존하면서 서로 우열을 다투는 것이다. 주희는 바로 이러한 人心과 道心 가운데 어느 편이 더 우세한가에 한 몸의 옳고 그름, 얻고 잃음, 그리고 천하의 안정과 위기가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정밀하게 선택을 하여 人心이 道心에 뒤섞이지 않도록 하고 일관되게 이것을 지켜내서 天理가 人欲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희는 주장한다. 주희는 바로 이러한 주장을 『書經(大禹謨)』에 나오는 “人心은 위태롭고 道心은 미약하니 정밀하고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심을 잡으라”는 말로써 요약한다. 주희는 바로 이 말이야말로 堯와 舜과 禹와 같은 聖인들이 은밀하게 전해준 비밀스런 가르침(密旨)이라고 한다. 주희는 도통설

(道統說)의 관점에서<sup>18)</sup> 이렇게 고대의 聖王들(堯, 舜, 禹)이 전해준 道가 湯, 文, 武와 같은 군주들과 여러 신하들, 그리고 周公을 거쳐 직접 孔子에게 전해졌으며, 또한 공자를 통하여 여러 제자들에게로 전해졌다<sup>19)</sup>고 말한다. 그런데 그렇게 직접 전해지던 道가 孟軻(孟子)가 죽은 후로는 더 이상 직접 전해지지 않고 끊겼다가, 1400여 년이 지나서 정씨 형제가 태어나 끊어졌던 道를 다시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도통설을 바탕으로 주희는 진량의 三代와 漢·唐에 대한 입장을 공격한다. 즉 지난 삼 사 백년 간의 기업(基業)은 지모와 무력으로만 부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희는 漢·唐은 결코 三代의 통치의 실마리(統緒)를 이어가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진량은 역사학적 관점에서 도통설에 기초한 이러한 주희의 역사적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물론 진량도 고대의 성왕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道가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도통설에서 나타나듯 “전해지지 않은 끊어진 학문(不傳底絕學)”이 있다는 것, 그래서 道가 일정 시기동안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통해서 지난 천 오백여 년간의 역사를 道統의 계보 밖으로 배척한 처사에 대해 저항했을 뿐이다.<sup>20)</sup> 진량은 지난 천 오백 년 동안 道가 역사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세속적인 유학

18) 주희는 『中庸章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蓋自上古聖神繼天立極，而道統之傳有自來矣。… 夫堯，舜，禹，天下之大聖也。… 自是以來，聖聖相承，若成湯，文，武之爲君，皐陶，伊，傅，周，召之爲臣，既皆以此而接夫道統之傳；若吾夫子，則雖不得其位，而所以繼往聖，開來學，其功反有賢于堯舜者。然當是時，見而知之者，惟顏氏，曾氏之傳得其宗。及曾氏之再傳，而復得夫子之孫子思，自是而又再傳以得孟氏，爲能推明是書(『中庸』)，以承先聖之統，及其沒而遂失其傳焉。… 故程夫子兄弟者出，得有所考，以續夫千載部傳之緒… 蓋子思之功于是爲大，而微程夫子，則亦莫能因其語而得其心也。”

19) 주희는 공자가 비록 왕이나 신하라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聖賢의 道를 계승하고 후세에 학문을 연 것을 고려한다면 그 공로가 堯, 舜과 같은 聖人보다도 큰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20) 참조할 것. “使漢唐之義不足以接三代之統緒，而謂三四百年之基業可以智力而扶持者，皆後世儒者之論也。世儒之論不破，則聖人之道無時而明，天下之亂無時而息矣。悲夫!” 『陳亮集』卷3, 「問答 上」.

자(世儒)들이야말로 오직 자기 몸만을 존귀하다고 여기고 자신만이 천하에 우뚝 서있다고 간주할 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주장(도통설에 기초하여 道가 지난 천 오 백년 동안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일삼는다는 것이다.<sup>21)</sup> 이 모든 진량의 비판과 그 자신의 三代 및 漢·唐시대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道에 대한 이해, 즉 道의 존재방식과 그것의 역사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 Ⅲ. 맺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주희와 진량의 논변에서 핵심적인 이론적 쟁점의 하나는 道개념이 함축하는 의미와 관련된 것(道의 존재 방식과 그것의 역사와의 관계, 그리고 마음과 제도의 항존성의 문제)이었다. 두 사람 모두에게 道는 현상세계의 본체이자 가치의 근원이다. 그런데 주희는 道가 현상세계의 모든 존재자들 속에 내재한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道가 그것들을 초월한다고 말함으로써, 道의 현실세계에 대한 보편적 내재성을 주장함과 더불어, 본체이자 가치의 원천인 道의 절대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희는 道에는 두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주희는 한편으로 道는 모든 구체적 사물들 속에 내재하여 그것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현실세계에 대한 道의 연속성의 측면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 시공의 제약을 넘어선 절대적 본체이자 가치 규범인 道의 현실에 대한 불연속적 성격을 말한다. 이처럼 주희는 초월적 이념으로서의 道 자체와 구체적 사물 속에 내재하는 道를 구분함으로써 본체(가치)와 현상(현실)사이의 이원적 긴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희

21) 진량의 道의 역사내재론과 역사상대주의적 관점으로부터의 도통설 비판은 다음과 같은 그의 글에도 잘 나타나 있다. —“洪荒之初, 聖賢繼作, 修明, 雖時有治亂, 而道無一日不在天下也. 而戰國秦漢以來, 千五百年之間, 此道安在? 而無一人能認其用, 聖賢亦不復作, 天下乃賴人之智力以維持, 而道遂爲不傳之妙物, 儒者又何從而得之, 以尊其身而獨立于天下?”, 『陳亮集』卷36, 「錢叔因墓碣銘」.

는 가치로서의 道와 존재의 근거로서의 道를 철저히 구분하지는 않음으로써 진량의 비판을 받게 된다. 진량이 보기에 주희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만일 가치로서의 초월적인 道가 존재의 근거로서의 내재적인 道와 동일한 것이라면, 어떻게 자연세계와 구체적인 현실 역사가 존재하면서 동시에 가치로서의 道가 그 현실 역사 속에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의 배후에는 존재의 근거로서의 道와 가치의 원천으로서의 道를 하나로 간주하는 관점에 대한 진량 자신이 관념(믿음)이 놓여있다. 진량은 道는 단지 구체적인 사물들 속에 내재하며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 사물들을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주장함으로써, 주희의 체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원적 분리를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道에 대한 일원적 관점(철저히 내재화된 道에 대한 관념)으로 인해서 진량은 존재하는(또한 존재했었던) 모든 현실(모든 역사적 현실권력과 인물들)의 가치를 아무런 제한이나 조건 없이 정당화하는 역사상 대주의 및 가치 상대주의가 함의하는 논리적 난점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진량은 주희와 같은 포괄적인 형이상학 체계, 즉 理氣를 중심으로 하는 본체론과 心性이론의 종합을 대체할만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이론체계를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도덕적 행위의 집행자로서의 '주체'의 확보와 규범의 객관적 타당성이라는 도덕 형이상학의 필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본 논고에서 다룬 제한된 주체의 범위 안에서 평가한다면, 이미 보았듯이 道에 대한 철저한 내재론적 관점과 인간 마음의 선험적 선험을 부정하고 오직 현상적 마음만을 인정한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및 주석서

- 朱熹, 『朱熹集』, 北京: 中華書局, 1983.  
 —, 『朱子語類』,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996.  
 陳亮, 『陳亮集』上·下(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7.

2. 원전 번역

- 『朱書百選』, 朱子思想研究會 옮김, 서울: 혜안, 2001.  
 陳淳, 『北溪字義』, 김영민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3.

3. 단행본

- 손영식, 『이성과 현실』, 울산: UUP, 1999.  
 董平, 劉宏章 共著, 『陳亮評傳』, 南京: 南京大出版社, 1996.  
 束景南, 『朱子大傳』, 福建教育出版社, 1985.  
 田浩, 『朱熹의 思惟世界』, 國家圖書出版品預行編目資料, 允晨文化(民國 85년).  
 —, 『功利主義儒家 - 陳亮對朱熹的挑戰』, 江蘇人民出版社, 1997.  
 陳來, 『宋明理學』, 瀋陽: 遼寧教育出版社, 1997년.  
 —, 『朱熹哲學研究』, 臺北: 文津出版社(民國 79년)(『주희의 철학』 이종란 외 옮김, 서울: 예문서원, 2002).  
 大濱皓, 『朱子の哲學』(『범주로 보는 주자학』 이형성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7).  
 Hoyt Cleveland Tillman, *Utilitarian Confucianism: Ch'en Liang's Challenge to Chu Hsi*(Harvard U. P., 1982).  
 —, *Confucian Discourse and Chu Hsi's Ascendancy*(University of Hawaii Press).  
 —, *Ch'en Liang on Public Interest and Law*(University of Hawaii Press).

## 4. 논문

이남영, 「朱子哲學에서의 道の 본질적 함의」, 『철학』 제6집, 1971.

이용주, 「朱熹의 문화적 정통의식 연구 — 도통론과 이단비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원 종교학과, 1999년.

Hoyt Cleveland Tillman, *The development of tension between virtue and achievement in Early Confucianism: Attitudes toward Kuan Chung and hegemon(pa) as conceptual symbols*(Philosophy East and West. 31. 1981).